



금융위원회

## 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 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9. 6.(화) 14:00
담당 부서	자본시장정책관 자본시장과	책임자	과 장 이수영 (02-2100-2650)
		담당자	사무관 현지은 (02-2100-2652)

## 「증권형 토큰 발행·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」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

-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의견수렴 -

### I 정책세미나 개요

- '22.9.6.(화),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·한국거래소·예탁결제원·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「증권형 토큰 발행·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」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.

#### < 「증권형 토큰 발행·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」 의견수렴 세미나 개요 >

- 일시/장소 : '22.9.6.(화) 14:00 ~ 16:00 / 금융투자협회 3층 볼스홀
- 논의주제 및 세부일정

구 분	시 간	내 용
개 회	14:00~14:10	○ (개회사) 김소영 (금융위원회 부위원장)
주 제 발 표	14:10~14:40	○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방향 (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)
패 널 토 론	14:40~16:00	○ (사 회) 조성훈 (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) ○ (토론자) <가나다순> - 김도현 (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) - 이수영 (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) - 이정수 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- 전계완 (삼성증권 디지털전략담당 상무) - 정호석 (법무법인 세움 변호사) - 천창민 (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) - 최정철 (한국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)

□ 증권형 토큰(Security Token)은 증권성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입니다.

○ 현행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 되지 않은 증권(예: 투자계약증권)의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어,

-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자본시장 규율에 포섭하여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바탕으로 한 시장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.

□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중 ‘증권형 토큰의 발행·유통 규율체계 정비’와 관련하여,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정책방향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.

○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일 정책세미나의 취지와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방향에 대해 밝혔으며,

○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정부·유관기관 T/F\*에서 검토해 온 내용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하였습니다.

\* ‘22.5월 ~ / 금융위, 금감원, 자본연, 외부 전문가, 예탁원, 한국거래소(KRX) 등

※ [별첨1]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

※ [별첨2]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방향 (유관기관 합동 T/F 검토 초안)

- 해당 내용은 확정된 정책방안이 아니며, 본 T/F 초안을 바탕으로 추가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임

- 금융위원회는 금일 정책세미나에서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4/4분기 중 「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」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.
  - 이를 통해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율방향과 발행 및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할 것입니다.
-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내년부터 전자증권법·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「증권형 토큰 규율체계」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.
  - 또한, 법적 기반 완비 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범 시장을 조성해 나가면서 그 결과도 함께 고려하여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.